

## 중학생의 부모-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

김 근 화 · 신 효 식  
(전남대학교 가정교육학과)

본 연구는 남·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-자녀간 의사소통을 살펴보고, 부모-자녀간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,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-자녀간 의사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부모-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 광역시 2개 중학교, 전남 읍 단위 2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2, 3학년 학생 650명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61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.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, 백분율, 표준편차,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, t-test와 일원변량분석(One-way ANOVA), Duncan's 다중범위 검정(Duncan's Multiple Range Test), 다중회귀분석(Multiple Regression Analysis)을 실시하였다.

본 조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는 첫째,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-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는 교우관계가 좋은 집단이 부와 모 모두 더 개방적이고,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여학생이 남학생보다, 2학년이 3학년보다 모와의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이고, 부의 직업이 사무직일 때 부와 가장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.

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-자녀간의 의사소통 시간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, 부·모 학력이 높을 때, 자녀 성적이 좋을 때, 교우관계가 좋을 때 부와 모 모두의 의사소통 시간이 많았고, 모의 연령이 40대일 때, 핵가족인 경우 모와 의사소통 시간이 많았다.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-자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교우관계가 좋은 집단이 부와 모 모두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았고,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, 부·모학력이 높을 때, 부의 직업이 무직일 때, 확대가족일 때 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았고, 성적이 낮은 집단이 부와 모 모두의 의사소통에서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았다.

둘째, 부모-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부와 모 모두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가 자아존중감이 높았고, 문제형 의사소통일 때는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. 부·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많을 때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았고, 부와 모 모두 의사소통에 만족하였을 때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.

셋째,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의사소통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우관계가 좋을 수록, 부·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수록, 성적이 좋을 수록, 부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.